

해피밀 시즌 6-4호를 발간하며,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쁨으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따스한 봄날이 지나 꽃들은 지고, 우리 곁에 푸르
른 잎이 무성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꽃은 지
고 계절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
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광야에서 이
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해피밀'을 통해 매일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결국
인간 왕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
데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는 더욱 분명
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들에게 참된 왕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
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영원
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
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 하지 않으십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과 인간 왕들의
한계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
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 역시
연약함 속에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
며,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피밀의 여정 속
에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 번,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
에 머무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5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Handwritten signature of Paul Jung.

해피밀 시즌6 이렇게 활용하세요 :-)

오늘의 통독범위입니다.

모세오경 통독완성시 <모세오경 마블자석>을 선물로 드립니다.

2026.02.10(월)



창세기 1~4장

창조와 타락, 구원 계획의 시작(창 3:15)

오늘 해피밀 제목입니다.

오늘 통독범위의 핵심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에
의 원인이 어디에서 부터 오는지 말하고 있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와 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오염되어, 시기, 질투, 다
툼, 재해, 살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진술은 고대 다른 신화와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다릅니다. 그
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인
제우스가 티탄과의 전쟁이 끝난 뒤 무료함을 느껴 생명체 창조를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프로
메테우스는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고 그 후 동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 에피메테
우스는 여기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하는데, 동물들에게는 강력한 재능들(이빨, 털, 날개 등등)
을 주었지만, 깜빡하고 인간에게는 재능을 주지 못하여, 인간은 가장 약하고 추위에도 취약
한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불쌍한 인간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

오늘 해피밀 묵상 설교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인간은 실패작, 실수작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
나님의 인간창조는 독보적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뒤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십
니다. 인간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완벽한 생체를 구성하신 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뜻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집에 오기 전에 부모는 분주하게 야간방을 꾸미기에 바쁩니다. 아기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인간을 완전하게, 실수
없이,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고 사랑함으로 창조하셨음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대비되게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들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
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와 세상을 끔찍하게 오염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핵심 본문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
나님의 마음이 들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뒷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
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죄와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
기가 타락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질문입니다.

묵상질문

1. 세상에 귀여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고백해보
세요.



Kings 열왕기



그리스도 중심으로 열왕기읽기



열왕기상 1-4장

지혜의 근원(왕상 3:9)

지혜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그저 정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정보를 사용하고 다루는 기술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에서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에는 그의 '선택의 문제' 앞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실수로 자기 아들을 죽인 여인이었고, 한 여인은 억울하게 자기 아들을 빼앗긴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여인 중 누가 진짜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발휘하여 '옳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지혜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선택'은 지혜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이 선택지는 현대에 와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별로 선택할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 드라마를 보면, 심지어 한 평생 함께할 배우자도 가족의 어른이 결정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매 선택, 배우자 선택,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무수한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에게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진정한 '지혜'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시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무엇을 줄꼬라고 물어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성경에서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즉 그는 '순종하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나님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 그것을 구한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구조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자들은 자신들이 순종한 불경 속에서 지혜의 유무를 판가름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자들은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시대 가치 속에서 지혜의 유무를 정할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구조가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순종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곧 예수님의 삶을 본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무수한 선택의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 아래에서 결정하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최근 나 혹은 우리 가정에게 놓여진 커다란 선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2. 최근 내가 한 선택은 예수님의 말씀 하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열왕기상 5-7장

성령의 전이 세워지기 위해(왕상 5:10-11)

오늘 성경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 기사에서 우리는 2가지의 특징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속에 지어진 '성령의 전'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을 도와줍니다.

먼저, 이 성전은 충분한 가치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백향목과 재목과 잣나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저 무료로 받지 않았습니다. 가치를 지불했습니다. 그는 히람에게 매 해마다 밀 이만 고르와 맑은 기름 이십고르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가치 지불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지어진 성령의 전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지불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가치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대신해 그 가치를 지불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재하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이제 거룩한 영이라 불리우는 성령의 전이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전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과 사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삶 속에 누리는 모든 복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속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행복을 누리며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저주 받고, 죽어야 마땅했던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날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있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성전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것들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광야에서 지어진 성막을 비교해보십시오.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해달의 가죽, 조각목과 같은 이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것 혹은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 말씀에서 지어지는 성전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백향목, 재목, 잣나무는 두로 땅에서 구해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지어져있는 성령의 전은 결코 우리 내부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외부로부터 친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속에 그 분이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공급하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묵상질문

1.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행복을 누리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묵상되십니까?
2.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8-10장

만일 돌아오거든(왕상 8:27-28)

얼마 전 유행했던 드라마 중 '폭삭 속았수다'에서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딸 금명에게 아빠는 늘 이러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금명이 처음 학교 갈 때에도, 시험을 치러 갈 때에도, 또 시집을 갈 때에도 아빠는 늘 금명에게 "수틀리면 빠꾸혀"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빠가 늘 든든히 금명이 뒤에서 지지하고 있고, 어떤 실수, 어떤 잘못, 어떤 불운도 다 같이 받아주겠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솔로몬의 기도 속 계시되는 하나님도 그러한 든든한 부성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이 패배하고 주께 돌아오거든" "만일 주께 범죄하여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성전으로 돌아와 기도하거든" "만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때,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간구하거든"과 같은 식으로 말합니다. 이 만일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인생의 어려움, 고난, 죄로 인한 벌, 죄책감, 실패, 낙심 속에서도 '만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시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만일'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성애적 사랑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현실과 여러가지 어려움 앞에서 고아와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버거운 일 앞에서 무력감과 실패감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겨우 단잠들어 아침에 깨서 일어나면 몰려오는 중압감과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할 때 핸드폰을 열지 마시고,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며 늘 우리 곁에서 '수틀리면 빠꾸혀' 라고 말씀하시고 '만일'의 사랑으로 든든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시는 것은 신앙의 큰 활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전에 거할 수 있는가 스스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투자하여 만든 매우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전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누추한 땅의 성전에 거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우리 마음의 성전에 좌정하셨습니다. 누추한 마음, 누추한 나의 삶 속에 말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봅시다.

묵상질문

1. 요즘 아침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2. 회복의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할 기도제목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1~14장

조각난 마음(왕상 11:1)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얻었습니다. 수 많은 나라는 솔로몬을 칭송하였고,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상태가 어떻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아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이제는 수 많은 여인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수십개의 조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솔로몬의 타락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나라를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비유는 오늘 본문 말씀의 솔로몬 상황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한 씨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씨는 어느 정도 자라지만, 결국 가시덤불이 씨에게 가야할 양분을 빼앗겨,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가시덤불들이 있습니다. 그가 사랑한 수 많은 여인들, 그 여인은 그의 마음의 양분을 빼앗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은 레저의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삶의 형편이 나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여유, 여가를 레저에서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레저는 때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산산히 조각냅니다. 취미생활을 그저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취미생활로 인한 시간의 분산, 그리고 마음의 분산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시간이 도무지 없습니다. 무수한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씨를 아낌없이 뿌리는 농부입니다. 이 세상의 콘텐츠가 무수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묵은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시고, 또 침투하고 있습니다. 레저에 빠진 우리를 그 분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소홀히 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사 다시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실 것입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 외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 끊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5-18장

지극히 경외하였더라(왕상 18:3)

그리스도인은 대체로 두 가지의 영역 속에 끼어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성취를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요구와 의무에 맞추어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권위자 아래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바댜는 그러한 삶의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그는 아합이라는 악한 왕을 섬기는 궁정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악한 왕 아래에서 의로운 왕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둔 시스템에 합류하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익을 향해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끼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어거스틴은 두 도성에 사는 사람이라고 일찍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도성을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바댜를 보십시오. 그는 아합의 신하였으나,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기지를 발휘하여 선지자 100명을 살렸습니다. 참 대단한 용기이고, 기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갈 때에 용기와 기지가 필요합니다. 용기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기 때문에 마땅히 마닥뜨릴 수 밖에 없는 세상의 거센 풍파를 마주할 용기를 뜻합니다. 기지라고 함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애를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바댜가 끼인 상황 속에서 용기와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경외가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였다고 말합니다. 두 영역 사이에 끼어 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는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지극한 사랑이 없는 신앙은 이미 뒤틀린 종교생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는 주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게 할 것입니다.

묵상질문

1. 내가 속한 영역들은 어느 곳입니까?
2.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만일 돌아오거든(왕상 8:27-28)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내 모습 이대로" 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신실히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얻는 참된 수용감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나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에는 '만일 돌아오거든'이라는 내용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그들이 만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없고, 무조건적이며 용서하고자 하시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가족 서로 간에 잘못된 행동을 하여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를 힘쓰길 소망합니다. 서로 회개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시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 언제나 용서하고 안아주고 품어줄, 또 그 허물을 덮어줄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나눔질문

1. 최근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진솔하게 나누어봅시다.
2. 회개하는 마음에 사랑으로 수용합시다. 그리고 허물을 서로 덮어줍시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열왕기상 19-22장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왕상 19:10-12)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를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경험이 몰려올 때면 우리는 당황하곤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상황, 감정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큰 혼란을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가뭄을 그치고 비가 내리게 했으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선지자였고, 모두가 그를 기뻐하고 따를 만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마 엘리야는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대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백성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왕과 위정자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부정, 부패를 일삼았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다면 지난날들을 청산하고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동역자들을 향한 기대였을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의 위협으로 많은 이들이 도망가고 굴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두고 하나님께 나아와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대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야는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해도 무엇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는 상황을 바라보며 엘리야는 탈진했습니다.

오늘 그런 엘리야를 주님께서서는 위로하시고, 먹이시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호렘으로 인도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서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와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찢고 찾아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엘리야의 경험적 한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기대를 아득히 넘어서는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어 죽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묵상질문

1.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마음이 상하였던 적이 있습니까?
2.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열왕기하 1-4장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왕하 4:1)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의 제자의 한 아내가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먼저는 그의 남편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의 집에 빛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빛으로 인하여 두 아들이 증으로 끌려가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물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면 누구나 다 죄와 저주의 찌꺼기들을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죄의 찌꺼기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사를 통해 과부의 고통을 돌아보셨습니다. 엘리사 과부에게 무엇이 있는지 물었고, 과부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 기름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아들들에게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빌려오게 하였고,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꾸짖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형편없다며 책망하시지 않으십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받아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최선의 것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들들은 그들이 가져온 그릇만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어떠한 것보다 크신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기대함으로 은혜받을 준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채워준 기름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그릇을 채우고도 넘쳤습니다. 덕분에 여인과 아들들은 빛을 갹을 수 있었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도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줍니다. 우리가 갹아야 할 죄의 갹을 완전히 지불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탕감받은 우리는 이제 살 소망을 얻어 마지막 날까지 쫓대를 향해 나아가갈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현재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주님께서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라고 하실 때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2.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결단할 순종이 있습니까?





열왕기하 5-8장

너무 쉬워서 거부한 구원(왕하 5:10-11)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용사로서 많은 명예와 힘을 가졌지만 나병 앞에서 꿈쩍도 못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는 이스라엘의 한 여종을 통해 엘리사의 소식을 듣게 되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 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아만은 분노했습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엘리사의 요청이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회복을 위해 적어도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상처 부위에 손을 얹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그에게 가르쳐 준 방법은 그의 기준에서 너무 쉬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쉬워서 김이 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친구를 바라보며 그의 비결을 궁금해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끓었어라든지, 운동했어’라는 일반적인 대답을 들으면 잔뜩 기대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식어지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름답고 크신 지혜로 우리에게 적절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요청은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빚어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기준에서 주관적 판단으로 순종을 거부합니다. 내 기준에서 쉬우면 쉽다며 불순종합니다. 내 기준에서 어려우면 어렵다며 불순종합니다. 즉, 하나님의 요청이 쉽고, 쉽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하는 나의 믿음입니다. 어떠한 문제이든지 그것을 주신 주님을 믿는다면 ‘아멘’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나아만은 그의 입장에서 엘리사의 요청을 판단했고 분노했지만, 13절에서 나아만의 종들은 종들의 입장에서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냐며 별 것도 아닌데 순종하기를 권유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묵상하고 인지하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나아만은 종들의 요청에 반응했고,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음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크고, 작은 모든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등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성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묵상질문

1. 부모님이나 교회의 요청에 순종하는 편이십니까?
2.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9-12장

한사람(왕하 11:17-21)

성경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아스 등과 같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을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진행하십니다. 그때에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숫자가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크신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언약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왕들은 다윗이 행함 같이 여호와의 길, 법도, 명령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아스 입장에서 할아버지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공주인 이달랴와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고, 권력과 세상의 방법의 길에 선 것입니다. 이미 세속에 물든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보다 권력과 정치가 더욱 막강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에게까지도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즉, 여호람과 아하시야에 이르기까지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세속에 물들어갔습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치시면서 동시에 그들과 가깝게 지내던 아하시야까지 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된 이달랴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족속을 멸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은혜 가운데 요아스의 누나가 요아스를 침실에 숨겨두어 마치 모세처럼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달랴는 모든 이들을 멸절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어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동안 요아스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큰 문제없이 자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던 해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단을 통해 반란을 일으켜 다시 왕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 된 요아스는 개혁을 도모했습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신당을 허물어 우상을 배격했습니다. 이달랴와 그의 무리들을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그때에 요아스의 나이는 겨우 칠 세였습니다.

우리는 요아스의 이야기와 성경 곳곳에 있는 한사람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한 분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큼 홀로 서신 분이 없고, 그분만큼 능력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홀로 우리와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묵상질문

1. 홀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외롭고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2. 혼자여서 포기했던 적은 있으십니까?





열왕기하 13-16장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시나요?(왕하 16:7)

다윗의 언약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왕들은 다윗이 행함 같이 여호와와 길, 법도, 명령을 지켜 행해야 했습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야 했습니다. 비록 외세가 침입하고, 나라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모든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도 의지했습니다. 바로 앗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었습니다. 그는 초조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지만 유다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면 다른 성읍들은 공격을 받고, 정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초조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도움을 청했습니다. 바로 앗수르 왕에게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을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앗수르의 제단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제단의 구조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건네어 새로운 제단을 만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대신에 이방 신의 제단을 사용했습니다. 아침, 저녁, 왕, 백성 등의 모든 제물을 이곳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의 제단은 여호와와의 뜻을 물을 때만 사용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성전의 기물들 또한 임의로 변경했습니다. 바로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의 제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2순위, 3순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삶을 선택하고 향유하는 모든 방향성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앞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병풍처럼 대하고 내가 그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단이 그를 시험할 때 그는 어떻게 응수하고 있습니까?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분의 말씀만으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공급처이심을, 신뢰의 대상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이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힘들 때 무엇을 먼저 찾고 계십니까?
2.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것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중심이신 가정(왕하 16:5-20)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세계의 중심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주님만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에 중심이 되어주시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아하스는 어려움에 처하자 앓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피할 바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중심축을 바꿨습니다. 여호와와 제단에서 앓수르 신의 제단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모시고 아하스 왕처럼 가끔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중심을 바로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우리 가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2. 하나님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지는 않습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열왕기하 17-20장

해산할 힘조차 없을 때(왕하 19:1-3)

유다 백성들은 회개, 슬픔, 비통을 표현할 때, 혹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탄식을 표현할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의 조롱과 모욕을 들었을 때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두른 채 여호와와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훼방한 원수에 대해 솟구치는 분노와 환난과 모욕을 당하고서도 헤쳐나갈 힘이 없는 원통함을 여호와 앞에서 호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원수를 대항하여 승리를 얻기는 원하나 물리칠 힘이 없는 상황이 마치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산모의 처지와 같았습니다. 이 비유는 유다 왕국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진통은 오는데 아기를 낳아야 할 산모에게 힘이 하나도 없다면 산모와 아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곧 원수에게 함락될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위기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히스기야와 유다에게는 어떠한 힘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덜컥 일을 벌여놓고 수습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앞뒤 따져보지 않고 믿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일이 커져 버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께 해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처방받길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쳤을 때는 낙심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그분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힘도 남아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이들이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헛된 간구입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의를 위하여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묵상질문

1. 나로 하여금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2.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길 포기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열왕기하 21-25장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왕하 25:13-17)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됩니다.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은 우선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성벽을 헐다는 것은 도시가 발가벗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성의 수치이며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건물인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으며 그중 가치가 있는 수많은 금속을 다 뜯어갔습니다. 그중에는 성전의 두 놋기둥과 놋바다가 있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 이름한 두 놋기둥은 그 높이만 해도 20미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놋바다는 무려 45톤의 물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릇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어마어마한 놋을 사용하였습니다. 열왕기상 7장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정성스럽고 아름답게 각 분야의 장인들을 통하여 이 물건들을 만들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기구들은 정성스럽게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모두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였는데, 야긴은 하나님이 세운다는 의미, 또한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한 개인이 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이 두 기둥은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그 아름다움은 사라졌으며 그에 담긴 의미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하나의 구리 조각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성전은 그 어떠한 의미와 아름다움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사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주실 복의 약속과 불순종할 때 받을 심판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거대한 성전 건물도 아니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기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에게서 떠나가자 성전도, 아름다운 기구도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과 존재의 의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비로소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아름다움과 의미를 갖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2. 내 이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를 통하여 경험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Chronicles 역대기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대기 읽기



역대상 1-5장

야베스의 기도(대상 4:9-10)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문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본래 그의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정말 고생스럽게 낳았기 때문에 이름을 야베스, 곧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 베냐민이라는 이름도 비슷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을 베냐민을 낳으며 심히 고생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그의 아가를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그 의미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개명하지 않고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계속 불렀다면, 그는 그를 낳다가 죽은 엄마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그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살아가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였으며 늘 고통이라는 수식어가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명하는 대신 기도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렸는데 첫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의 운명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운명에 매몰되지 않고 이를 기도로 돌파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의 지역은 넓어졌으며,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벗어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근심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타인의 기도문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할 정도라면, 야베스는 누구나 이정할 정도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야베스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묵상질문

1. 야베스의 기도문과 같이 나에게도 나만의 기도문이 있습니까?
2.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바뀌주시길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역대상 6-10장

처음에는 좋았지(대상 10:11-14)

역대상을 기록한 이유는 포로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선 멸망의 길로 갔던 사울의 관해서는 그의 죽음에 관해서만 살짝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최후의 전투에서 적군의 숫자가 많음을 보고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무엘의 영을 통하여 그가 전투에서 패할 것이며 그와 그의 아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전투에 참전하였으나 이 전투는 하나님이 사울의 집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었으므로 그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습니다. 이후 사울도 상처를 입은 채 도망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 이후 전리품을 수거하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발견하고 이를 모두 뱀산 성벽에 목 박아 큰 수치를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밤새 뱀산으로 달려가 그 시체들을 거두어 야베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칠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토록 몰락한 왕조를 향해 충성을 다한 이유는 과거에 사울이 그들의 생명을 암몬 사람으로부터 구원해준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울이 아니었으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모두 한쪽 눈을 다 잃고 암몬의 노예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왕이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이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지위가 높아지고 공로를 세워가며 차차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울의 모습은 그가 변하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 앞에선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겸손하게 오셨으며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발을 겸손하게 닦아주셨습니다.

묵상질문

1. 시간이 지나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변질되거나 타락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2.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역대상 11-15장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대상 15:11-13)

의도가 좋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 아래에 두기 싫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고 싶은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매우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이 나에게 허락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를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이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판단해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든지, 타인을 설득하는 과정을 뛰어넘죠. 그러면서 내가 나쁜 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이래도 괜찮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어떻게 가는지가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 성에 두고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앞길을 묻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에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그는 진심을 담아서 그의 방식대로 정성껏 여호와께 모셔오는 부분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수레를 몰던 옷사가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오직 규례대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규례대로 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늘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좋은 의도라고 판단되어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2. 주님을 위하여 아무리 열심히 하였지만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대상 10:11-14)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가정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정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바라보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통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사울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시간이 지나며 많은 공로를 세우고 물질을 갖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마지막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존중했던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했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항상 겸손하시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요즘 겸손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나요?
2.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나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역대상 16-20장

다윗의 오해(대상 17:1-4)

역대상 17장의 말씀은 앞뒤 흐름을 함께 살펴볼 때 더욱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를 기뻐한 다윗은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지만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 다윗 스스로 마땅치 않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장막 가운데 계셨고, 누구에게도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장막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바라보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선한 마음을 받으셨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이런 은혜에 다윗은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22절)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시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계시며,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고하게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역대상 21-25장

신앙의 유산(대상 22:10-13)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건물이나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고, 그의 왕위가 영원토록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전이자, 이스라엘의 번제단을 건축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자신이 살아 있을 때에 다 지을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아들이었던 솔로몬과 후대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성전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후손들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자신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의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심어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여호와 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다윗이 애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것은 다윗이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을 이어 성전을 짓도록 말씀하셨습니다.(11절) 이는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까? 믿음은 자라지 못 하더라도 세상적인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까? 부모세대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는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세대에게 가장 복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성세대를 이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기성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무엇입니까?
2. 내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역대상 26-29장

다시 하나님께(대상 29:10-14)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진짜 자신의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대상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드는 순간, 그것을 내어 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이 나의 것,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하여 경배를 올려드린 뒤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천지 만물과 모든 권능과 부와 귀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재가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많은 영역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은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 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물질, 몸과 마음까지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의 것이라 여기며 손에 쥐기 시작하면, 잃어버릴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것이 조금 사라지면 허전하고, 공허해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함을 얻어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불안보다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 드리오니 찬양받아 주옵소서"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현재 '나의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오늘 내가 다시 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역대하 1-6장

지혜의 결과(대하 6:7-11)

다윗이 죽고,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통동 범위를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재정비하고, 건축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다윗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신의 삶과 지혜가 쓰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이후에 솔로몬의 기도가 나타나는데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가장 우선되는 소망과 기도제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되는 소망과 기도제목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결과로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통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솔로몬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라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오늘 하루,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통해 솔로몬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은 누구를 위한 소원입니까?
2.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7-12장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대하 7:14-16)

역대하 6장에서 다윗을 이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7장에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끝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제물을 태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게 됩니다.(1절)

이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는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 성전을 짓고자 했던 솔로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고, 그들과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머무르지 않으셔도 되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무시면서 당신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구약의 성전이 이 땅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특정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14절의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을 성전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성전임을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성전에서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나의 몸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전으로서 지키지 못했던 부분은 무엇이며, 나의 삶 속에서 돌이켜야 하는 악한 길은 무엇입니까?
2. 지금 현재 솔로몬과 같이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유산(대상 22:10-13)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장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함께 들어보세요!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유산이 뭘까요? 대표적으로 유산이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많은 경우, 부모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물려주거나, 건물 유산으로 물려주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은 유산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성전을 짓는 모습으로 물려주고 있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자신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섬기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질문

- 1.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 2.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